

도내 우수 농산물 전국에 뽐낸다

19일까지 3일간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전라북도 우수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와 단체들이 전국에 전북 친환경 유기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원협, 고산농협, 베리밸리 등 도내 6개 업체가 오는 8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제16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관련 비즈니스 박람회로 120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올해 박람회 행사장에는 국내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기농 가공식품, 천연화장품 등 친환경 유기농 관련

제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유기농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홍보관, 국내/해외 기업관,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친환경 유기농 농자재 등이 전시된다.

전북도 참가업체 및 주요 전시,홍보 품목으로 (익산원협) 과일류, 버섯, 잡곡 (정읍원협) 여주(황), 포도, 초석잠 (남원원협) 과채류, 구근류 (고산농협) 곡감, 표고버섯, 감시초, 잡곡류 (무

주농협) 천마, 사과, 인삼(엑기스) (임실 베리밸리영농법인) 블루베리(음료, 잼), 국수, 아이스크림 등 6개 업체 19개 제품이 전시된다. 도는 2012년부터 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부스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로 일회인 '제 값 받는 농업'을 위한 국내외 시장동향 파악, 유통망 확충, 사업기반 확보,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의 효과와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 견결음

뉴딜사업 설명회·전략회의 개최... 시군 공무원 머리맞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을 위한 설명회 및 전략회의가 16일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에 개최된 시군 간담회에 이어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발표에 따른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앙 공모선정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사업 유형별 후보지 발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발굴된 사업에 대해 보완,수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도 건설교통국 김천환 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이 이끄는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양은 냄비처럼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다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뚝배기처럼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따뜻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재해위험지구 여름철 재난대비 현장행정 앞장

이현웅 도민안전실장 순창군 유등면 방문



관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지시를 마쳤다.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16일, 순창군 유등면 유촌 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유등면 유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한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순창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시 안전

한 지역으로 총 90여명의 사업비 투입,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도서관위,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디딤돌 연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정기관 수형자의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인 '디딤돌 연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디딤돌 연수는 다시 사회로 돌아올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형자를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선거와 민주주의', '선거역사 인문학 강좌'를 통해 주권행사 및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 9일 정읍교도

소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는 8월 21일에는 군산교도소에서도 실시된다. 도서관위에 따르면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185명 정도가 디딤돌 연수를 받는다.

도서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교정기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영농철 농기계 수리 봉사 전북도, 14개 시군 순회

전북도는 가을철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의 고장을 방지해 영농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편성 운영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농기계 점검정비를 통해 농기계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기영농을 할 수 있도록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매년 봄·가을철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 고장시 수리봉사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다.

가을철 농기계 수리봉사에는 7개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아세이텍(주), LS엠트론(주), 신흥기업(주), (주)한성T&D로 구성되어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14개 시·군에 7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전문 수리기사 10명과 8대의 차량으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순회수리봉사 일정은 각 제조업체별 순회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읍면별 일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여 수리를 받으면 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건조기, 관리기 등 동력기계와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순회수리봉사 기간 동안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검·수리를 무료(부품대금 실비 부담)로 실시한다. /김진성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직원들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추가질문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뜨고 있다.

“체불임금만큼은 바로잡을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감독 강화 등 약속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6일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 “국제정·법무부 등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체불임금만큼은 정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아니라 사회의 취약 계층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주가 정말 기업을 접을만큼 망해서, 문을 닫아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밀정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을 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을 늘려달라는 이 대표의 주문에도 “근로감독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500명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300명을 받았다. 500명도 부족하다. 국회에서 많이 (증원)해주시고, 저는 근로감독관을 그냥 임명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추 대표는 김 장관을 만나 “너무나 현장을 잘 아는 분이 장관이 돼서 기대가 크다. 국민도 가장 크게 기대하는 장관 중 한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앞으로 당정이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부분이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안착을 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테니 안심하고 어려운 현안을 돌파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